

[2019 전주 시나리오 스쿨 단편시나리오 완성과정] 강의계획서

1. 수업소개

글 잘 쓰는 법에 대한 물음에 스티븐 킹은 이렇게 답한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앉아 쓰세요.” 글쓰기는 노동이다. 시나리오 쓰기도 마찬가지다. 시나리오는 엉덩이로 쓰는 것. 그러니까 성실해야만 한다. 당장 성과가 없어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재능을 의심하며 수많은 악평과 거절과 낙선의 시간을 견뎌야한다. 그래도 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자신과 약속하시라. 어쨌든 수강기간 동안 단편 시나리오 한 편은 꼭 쓰겠다고. 이런 각오 없이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 마음으로 쓴 글은 쓸 게 없을 것이다. 이 수업은 시나리오를 쓰고 싶지만 어떻게 써야할지 몰라 답답해하는 입문자에게 열려있다. 영화에 대한 열정과 독심이 있는 분들, 환영한다.

2. 수업목표

단편시나리오 입문자들이 영화적인 글쓰기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작법을 익히도록 한다. 단편시나리오는 대부분 연출까지 염두에 둔 작업인 만큼 영화언어와 영화적 스토리텔링의 특성을 익혀 실제 단편영화를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한다.

3. 커리큘럼

회차	날짜	강의내용
1	09/16(월)	단편영화란 무엇이며 어떤 시나리오를 쓸 것인가?
2	09/19(목)	단편시나리오 작법(1) - 컨셉, 주제, 소재
3	09/23(월)	단편시나리오 작법(2) - 인물(캐릭터)과 대사
4	09/26(목)	단편시나리오 작법(3) - 이야기와 플롯
5	09/30(월)	우수 시나리오 분석
6	10/10(목)	단편영화 만들기(1) - 영화언어의 이해
7	10/17(목)	단편영화 만들기(2) - 스토리보드, 예산서 및 제작지원 서류작성법
8	10/24(목)	우수 단편영화 분석
9	10/31(목)	시나리오 실습작품 합평(1)
10	11/07(목)	시나리오 실습작품 합평(2)